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Time-SLC는 필리핀 수빅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은 5층까지 있고, 제가 어학연수를 갔을 땐 4개의 학교가 함께 한 건물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규모가 작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설은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시설이 노후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랑 정이 많이 들어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갈 때 정말 슬픕니다. .
수업	수업은 도착한 다음 날 바로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대로 반이 나누어지며, 자기 실력에 맞는 책에 따라 선생님이 배정됩니다. 수업은 총 8개의 교시로 이루어지는데, 4개는 1 대 1 수업으로 선생님 한 분과 학생 한 명이 50분 동안 작은방 안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4개의 교시는 시험 결과에 따라 자기와 영어실력이 비슷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은 시험결과에 따라 처음 선생님이 배정되고, 3일 후에 선생님을 교체하게 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선생님의 수업과 자신의 공부 방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때 선생님을 다른 분으로 교체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제는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는데 있어도 많지 않은 양이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단어 수업 전에는 미리 단어 해석을 찾아갔었는데도 제 능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모르면 끝까지 알려주시려고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Activity	첫 번째로는 수빅투어를 했었는데, 수빅투어를 처음에 함으로써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어디에서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Anvaya Cove를 갔었는데 필리핀에서 명성 높은 리조트답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는 수영복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닐라 투어를 갔었는데 이때 저는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원래는 요트투어가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출항 금지로 요트 투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다 안 나지만 액티비티를 할 때마다 따로 요금을 건었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처음에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습해서 놀랐는데 한 달 후에 한국에 왔을 때에는 한국이 너무 더워서 놀랐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우산과 우비는 꼭 챙겨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사실 필리핀에 가기 전에는 안전에 대해 많이 걱정했었는데, 막상 필리핀에서 생활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필리핀 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밖에 나가도 친구들과 함께 다녀서 크게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숙소	학교 기숙사는 시설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벌레가 많지만 현지 마트에서 파는 벌레 퇴치약을 뿌리니 효과가 좋아서 벌레 물림에 대한 걱정은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는 일~목요일은 10시에 점호를 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12시에 점호를 합니다.
식사	저는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거의 밖에서 먹었습니다. 물갈이를 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저는 물갈이를 하지 않아서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들은 가리지 않고 다 먹어봤습니다.
교통	수업이 끝나고 밖에 나갈 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샌딩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해 외출했습니다. 택시를 부르면 생각보다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다리기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600,000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저는 수영복을 가져가지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수영을 할 기회가 많아서 수영복은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부족하면 필리핀 현지 ATM에서도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생각보다 병원비와 약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상약을 많이 챙겨오는 게 좋습니다. 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우산과 우비는 필수입니다. 저는 물가가 싸서 첫째 주에 돈을 많이 썼었는데, 나중에 출국할 때쯤 기념품들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위해서 계획하고 돈을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 필리핀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같이 가는 친구들이 없어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막상 필리핀에 도착하니 도착하자마자 좋은 룸메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 동생들을 만나서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그 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매일매일 만나고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들과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 건물사진입니다.	수빅에 위치한 하버포인트 백화점 모습입니다.
	
Anvaya Cove에서 찍은 바다풍경입니다.	그룹수업 마지막 날 찍은 사진입니다.
	
수요일마다 하는 액티비티 활동 모습입니다.	학교 안의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입니다.